이베로아메리카 제4집(2002년)

탱고와 함께 떠나는 아르헨티나 역사기행

곽 재 성*

1. 들어가기

아르헨티나인들은 예로부터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영화로웠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하여 IMF의 구제금융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것은 거만함이라기보다 자신감이며, 세계를 호령해 보겠다는 원대한 꿈을 한 때 품었던 대륙적 기질이다. 일찍이 1920년대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했던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말로는 이 도시를 <존재하지 않았던 제국의 수도>라고 칭했다. 세계적 제국이 되고자 하는 아르헨티나의 원대한 꿈을 정확히 꿰뚫어 본 표현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자부심의 원천은 드넓은 팜파의 지평선 끝까지 가득 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이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지형적 특성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는 다르게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기후지역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국토의 대부분은 팜파라고 하는 비옥한 초지로 형성되어 있고 그 넓이는 미국의 텍사스주와 비슷하다고 하니 웅대한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이 초지에서 방목되는 소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부와 자존심의 원천인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대리석 한 장과 소 한 마리를 기꺼이 바꾸었고, 이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이미 19세기 말에 지하철을 건설했으며, 한때 세계 5대 부국의 반열에 들기도 하였다. 스페인의 소(투우)가 수 천년 역사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 그리고 그

*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리스, 로마 시대의 유산 등에 입각한 역사적·문화적 의의를 갖는다면 아르헨티나의 소는 하나의 자원이며 번영을 약속하는 경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요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실패한 국가'로 여겨진다. 한때 아르헨티나는 20세기의 안정된 정치경제를 바탕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신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안정된 정부와 교육받은 국민이 결합한 선진국에서 사회-경제불안, 외채위기, 정치적 갈등, 팽배한 군사문화 등으로 점철된 후진국으로 추락하였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식민시대의 경제구조, 상류층의 무책임, 페론과 같은 선동정치가의 등장, 반동적 가톨릭 교회, 권력지향적 군부, 권위주의적 전통, 좌-우간의 이념적 갈등, 다국적기업의 횡포, 영-미의 간섭으로부터 국가정체성 확립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못해 상호모순되기까지하다.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아르헨티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후안 바우띠스따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1810-1884)같은 이는 <통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gobernar es poblar>라고 선언할 정도였다. 하루아침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민정책은 국가의 기틀이 다져진 1853년 헌법에 이미 아르헨티나의 국가노선으로 명시되었다. 이민정책은 단지 인구의 양적 증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스페인이 남긴 전 근대적 식민잔재를 일소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개발인력과 문명의 전도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토지 소유제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농촌의 실상은 부푼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왔던 유럽의 이민자들에게 그다지 큰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했고 이민자들의 고독과 향수는 물적 욕구를 채우지 못한 현실적 불만에 더하여 깊어가기만 했다.

그러므로, 19세기의 아르헨티나는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매우 강한 유럽 지향성을 띄고 있었다. 즉 독립 이후에 자주적인 역사를 원했던 '이상'과 대규모의 유럽이민을 받아들어야 했던 '현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나라이다.

결국 탱고는 아르헨티나가 국가 정체성의 기초를 마련하던 이러한 시기의 문화산물이다. 유럽에서의 대량이민이 유입된 이후 농, 목축업의 발전으로 축적한 자본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탱고는 '남미의 파리'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활기차지만 혼동스러운 공간에서 탄생한다.

이 글은 탱고라는 문화산물이 태동했던 시대를 전후한 아르헨티나 근대사를 다루어보면서 문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역사성을 접근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2. 19세기의 아르헨티나

스페인의 식민이 시작된 16세기 초반부터 약 200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지역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스페인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에 위치한 지역인 라 플라타강 유역에는 멕시코나 페루와 같이 금과 은이 매장되어있지 않았고, 농업부문을 유지할 기반인 인디오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초기 정복자중의 한 사람인 페드로 데 멘도사Pedro de Mendoza가 아르헨티나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내륙으로 이동하여 현재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 Asunción에 본부를 건설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는 중심부(유럽 또는 아메리카대륙의 중심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는 지리적 위치 탓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차별되는 역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18세기 후반부가 되어서야 본토로부터 행정관corregidores이 파견된 사실도 스페인 제국에서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주변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는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칼버트(1989)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주변성은 이 나라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립시킨 결과 두 가지 효과를 낳았다고 한다. 하나는 "고립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민족주의를 고양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부적인 위치를 해석함에 있어 "남미의 일부가 아닌 '유럽의 끝'으로 보아 정체성 확립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Calvert, 1989:210)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18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식민초기의 주변성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한다. 그 계기는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2-1713)이후 체결된 유트레히트조약(Treaty of Utrecht, 1713년)에 따라 영국이 남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노예를 공급할 권리를 얻게 되고 세계무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였다.[1] 영국의 무역선들이 수송해 온 것은 노예만이 아니었다. 관세를 피하자는 목적으로 몰래 들여온 밀수품들은 아르헨티나의 라 플라타강 유역을 거쳐 페루까지 팔려나갔다. 반면 밀수품을 실어나르던 영국의 무역선은 유럽으로 회항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소 가죽과 염장고기, 소 지방 등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염장고기는 유럽은 물론이고 쿠바와 브라질의 노예노동력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주된 원천이었고, 소의 지방은 수지(獸脂)양초로 제조되어 전 세계로 공급되었다.

비록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던 영국과의 무역이었지만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식민초기의 주변성과 후진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스페인 왕실은 1776년에 스페인의 부왕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Wynia, 1986:17)

---

1) 영국과 남미간의 노예무역을 주로 담당하던 회사는 싸우스 씨(The South Sea company)社 였으며 이 회사의 본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부흥과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정치권은 독립이후 약 반세기동안 연방주의자들과 단일정부주의자간의 내전에 가까운 갈등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일정부주의자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선호했고 연방주의자들은 각 지역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 느슨한 형태의 정부형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은 아르헨티나의 정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고, 대외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이권과 손해를 둘러싼 중앙(부에노스 아이레스)과 지방간의 갈등이었다. 지방은 막대한 관세수입을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가 독점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고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된 저가의 유럽산(영국산) 산물이 수입되어 자신들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염려했다. 결국 1852년 중앙집권파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1880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아르헨티나 연방수도로 정식 선포되었다.

지방의 실력자들은 대토지 소유주로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문제의 해결수단은 늘 총과 칼이었다. 또한 독립 이후 19세기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앙권력의 힘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제도권내에서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이나 국가의 대소사를 공평무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만한 관료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갈등요소가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도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정치력의 부재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이민의 유입: Gobernar es Poblar,

미리 언급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중상류층은 초기에 탱고를 철저히 외면했

다. 카톨릭에 바탕을 둔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당시로서는 유곽에서 모르는 남녀끼리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부감은 탱고가 이민자들의 춤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온 아르헨티나로의 이민열풍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1880년대, 연방주의를 표방했던 독재자인 로사스Rosas가 몰락하자 뒤를 이어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균형잡힌 국토의 이용을 위해 내륙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게되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의 유입이 필요하게 된다. 농, 축산업계의 대 자본(지주)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으로부터 노동자를 받아들여 새 농지 개간과 소작, 또는 농번기 수확에 투입하였다. 이민자의 숫자는 1889년 기준으로 220,000만 명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이민이 유입되었던 해는 1912년으로 약 323,000명이 대서양을 건넜다.(Wynia, 1986:21) 이민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아르헨티나 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1915년 전에 이주해온 이민자들 중 4분의 1정도는 유럽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있다.[2)]

둘째, 때마침 유럽의 산업혁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식량수요가 급증하였고 주요 곡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게 되며 농업분야와 건설분야에 종사할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였다.[3)] 인디오 인구가 소수였고 자체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던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을 메울 유일한 방편은 외부에서 노동력을 유입시키는 것이다. 식민시대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업과 같이 아프리카의 노예 노동

2) 이때 유태인도 러시아로부터 대량으로 이주해왔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에는 약 400,0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Wynia, 1986:21) 이들은 산업, 금융, 무역과 정치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반 유대주의가 싹트게된 배경이기도하다.

3) 1914년에 이르러서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력을 사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이민을 장려한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실용적인 이유를 뒷받침하여 아르헨티나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유럽이민의 유입을 더욱 더 장려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이민을 통해 유럽의 <고급문화>를 확실하게 이식시키고자 했던 열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리적 주변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디오 인구 탓에 국가정체성의 확립의 문제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궤적을 달리한다. 즉 19세기 아르헨티나의 집권세력인 자유주의자들은 이베리아반도의 유산을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는데 서슴지 않았으며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 히스패닉화 과정을 거쳐야함은 물론이며 동시에 (스페인을 제외한)유럽과 미국의 문물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민정책의 배후에는 광활한 지역을 개척하고 일찌감치 인디오를 축출하여 문명산업국이 된 미국을 모델로 삼고자하는 의도도 있었다. 따라서 집권층이 계산했던 바는 유럽으로부터 '우월한' 인종과 선진문물이 유입되면 야만의 땅을 문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르헨티나에서 19세기의 탈 히스패닉 운동이 노골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아르헨티나와 유럽 열강들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독립이전부터 영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프랑스, 특히 파리라는 도시는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숭배된 공간이었다. 이탈리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고, 독일은 아르헨티나 군대의 체제확립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 당사자였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위한 식량수요가 급증하자 아르헨티나로부터 대규모로 곡물을 수입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대규모 투자를 아르헨티나에 단행하여 국가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1889년에 총 연장 6,500km에 불과했던 철도가 1914년에는 31,000km로 확장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의 농·목축업 발전, 특히 밀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민자들은 대체로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동구권 등 유럽의 후진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지배층은 이민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대다수 이민자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로사리오Rosario라는 하구도시에 공장 노동자로 터전을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목축업에 이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놓은 상황에서 이민 노동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엘리트에게 있어 이들의 도시 유입은 예상치 못한 고민거리였다. 급격한 도시팽창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소위 신흥 노동계층에는 유럽에서 도망친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섞여 있어서 상당히 과격한 소요를 주동하였기에 이들에 대한 상류층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한편 이민자들의 불만도 이에 못지 않았다. 다음 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 농업이 소수의 지주들이 독점하는 대토지 소유제Latifundio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던 터라 부를 좇아 대서양을 건넌 이민자들은 단 한 뼘의 땅을 소유하기도 힘들었다. 결국 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지만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아르헨티나 지배층이 이민자와 정치권력까지 나누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치는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지배층이었던 대지주를 위시한 극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빈민들은 점점 정치세력화하였고 도시 중산층까지도 이에 가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급격히 증가한 이민자들은 선진문물의 전파자로 인정되기보다는 국가 정체성을 흔들었던 문제아로 지목되었으며,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20세기는 불안하게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1895년의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인구 400만 명 중 34%가 외국인이었고 1914년에는 인구 788만 5천 명 중 무려 43%가 외국인이었다. 아르헨티나인과 이민자 사이의 문화적·언어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있었다. 기존 엘리트들은 언어적·문화적 갈등의 와중에서

점점 피의 순수성까지도 논하는 국수주의자가 되어 갔고, 기존질서를 지키기 위해 성, 도덕, 범죄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4. 이민과 계층분화

아르헨티나처럼 단 기간동안 국가건설을 추진해온 나라의 경우 과연 누가 발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히 대두된다. 그것은 19세기부터 아르헨티나 사회가 고민을 거듭한 화두이며 계층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주요 소재이기도 하다. 목축업을 통해 지주들이 축적한 자본은 하부구조의 건설을 비롯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아르헨티나에는 단 기간에 막대한 부가 축적되긴 했지만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라는 사적이익의 공적전환 개념이 전혀 자리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53년의 신 헌법에 의해 집권하여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정부는 해외자본의 차입에 주력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없었다. 물론 유럽으로부터의 곡물과 육류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였고 농지는 내륙으로 더 확장되었으며 수출품 운송을 위한 교통망도 차츰 정비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는 토지소유의 불평등이다. 국가의 경제활동이 곧 팜파에서의 농, 축산업을 의미했고 다른 생산방식mode of production은 무시되거나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던 나라에서 팜파 총 면적의 8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오직 8퍼센트의 인구였다면(1914년을 기준) 심하게 왜곡된 토지소유의 집중도를 짐작할 수 있다.(Wynia, 1986:18) 식민시대부터 이미 배분되기 시작한 팜파의 토지소유권은 인디오를 몰아내었던 <사막정복 Conquest of the Desert사업(1879-1883)>을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지주

들에게 배분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농업발전은 토지에 대한 가치를 지나치게 고 평가시켜 하위계층과 이민자의 토지소유를 어렵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소작인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지방으로 쉽게 떠났기 때문에 농촌간의 인구이동이 빈번하여 농촌이나 지방 도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정치와 경제의 거의 모든 기능을 대도시, 그 중에서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집중시켜 아르헨티나가 지역 간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결과를 잉태하였다. 만일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에서 토지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하였다면 오늘날 이 사회는 사못 다르게 변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는 극소수의 지주계층이 국부를 독점하는 과두제가 정착하였을 뿐이다. 동시에 대토지 소유제와 소작이 결합한 형태인 20세기 초반의 아르헨티나 농업과 목축업은 토지 소유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목축업의 진흥으로 이 나라는 세계적인 농업국의 반열에 오늘 수 있었다. 일인당 국민소득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을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1860년부터 1914년 사이에 곡물생산 면적이 1,600퍼센트가 증가하였고 대외곡물수출이 무려 2,000퍼센트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민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농촌 노동력으로 남아 농업의 진흥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반증해주는 증거이다. 또한 식민시대에도 형성되지 않던 아씨엔다(Hacienda)가 역사상 최초로 아르헨티나에 출현하게 된 배경도 역시 농업의 부흥과 유럽이민의 유입이라는 시대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Wynia, 1986:18)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극소수의 지주계급이 축적한 부가 사회전체를 위해 건전하게 재 투자되거나 하위계층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5. 탱고의 발생과 국제화

항구도시는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외래의 문물이 수입되어 현지화 단계를 거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한편으로는 항구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륙으로의 관문인 라 플라타강의 하구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위치에 힘입어 식민시대 후반기부터 번성하였다. 즉,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팜파로부터의 축산물과 포토시Potosí를 비롯한 남미대륙의 내륙지방에서 생산된 은을 수출하는 항구로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들과 유럽산 공산품이 수입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 도시는 19세기 말의 이민 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870년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구는 고작 18만이었다. 그러나 60년 후인 1930년에는 180만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19세기 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3이 이민 1세대였다고 한다. 또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어 계층분화를 촉진하자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회는 철저하게 둘로 갈라지게 된다. 상류층은 영국식 애프터눈 티tea를 거르지 않고 마셨고, 최신식 파리 패션을 즐겼으며, 불어를 배움으로써 샴페인 라벨에 써진 문구를 유창하게 읽어내려 갔다. 다른 한편, 시 남동쪽의 보카La Boca항에는 남부 이태리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부두노동자, 선원, 창녀들이 심한 가난 속에 어우러지고 있었다.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출입했던 배들은 모두 시 남동쪽의 보카지구에 정박했기 때문에 선박의 짐을 부릴 인부에서부터 시내로 손님을 나를 인력거꾼 등 단순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itution 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자 공업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내수 및 수출용 육류 가공을 위한 도축장도 시의 남쪽에 자리잡게 된다. 그리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남쪽지역은 하층 노동자인 유럽이민자의 거주지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특유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볼룹 댄스의 일종인 탱고는 격동의 시대였던 1880년대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생겨났다. 4분의 2박자의 빠른 리듬을 지녔던 초반기 탱고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가락은 밀롱가milonga라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독특한 음악인데 이 밀롱가에는 유럽 음악과 쿠바 아바나 풍의 리듬이 섞여 있다. 아바나 리듬의 유래가 아프리카와 스페인 음악의 혼종이었으니 밀롱가와 탱고에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3대륙의 문화가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람바다나 살사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인의 정열을 발산하는 춤들에 비하면 탱고에는 남녀 사이의 노골적 신체 접촉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서로 다리를 가볍게 스치거나, 상대방의 가랑이 사이에 날렵하게 다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들은 탱고가 탄생했던 당시로서는 에로티즘 그 자체였다. 그 현란한 다리 동작으로 인해 탱고를 일명 <다리 사이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늘날에도 노골적 춤보다 오히려 에로틱하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허리를 휘감는 동작 역시 은근한 관능미를 풍기며, 타오르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면으로 보아 탱고의 모든 동작은 섹스를 은유하고 있다. 즉, 탱고는 향수에 시달리는 이민자들과 몸파는 여자 사이에서 서로 몸이 스치고 다리를 교차시키기도 하는 춤동작에서 비롯되었다.

탱고의 발생기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하구 보까Boca지구나 도시 변두리 빈촌인 아라발arrabal에서는 이민자들과 하층민들이 이 음악을 통해 애환과 향수를 달랬다.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선술집, 심지어 거리에서까지 탱고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민자가 많은 독특한 사회구조가 더욱 이를 부추겼다. 힘들고 고달픈 하루의 노동은 항구에 인접한 선술집에서 서민적인 음악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부분 가족을 고향에 두고 왔거나 미혼인 노동자들과 밤의 여인들과의 결합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사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다른 어느 도시 이상으로 매춘업이 발달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직업여성에 대한 수요가 많기도 했거니와 1869년에 매춘을 법적으로 허용했던

탓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대문호 보르헤스는 탱고는 매음굴에서 발생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남자들은 대개 멋스럽게 치장을 하고 호기를 부리곤 했는데 이들을 가리켜 '꼼빠르레compadre' 또는 '꼼빠드리또compadrito'라고 한다. 술집이나 유곽을 찾은 남자손님들이 그 춤의 관객이자 소비자가 되었고 선정성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닫힌 공간에서만 행해졌다. 그러므로 탱고에는 고향을 그리는 향수, 여자 없는 설움,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가 처절하게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왜 탱고가 발생초기부터 아르헨티나의 상류층에게 그렇게 냉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문화유산이 그렇듯이, 탱고 또한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을 오가며 성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탱고하면 파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탱고가 저질의 춤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는 유럽에서의 대중화에 힘입은 바 크다. 탱고의 국제화 시기는 1890년과 1920년 사이로, 이때 하나의 장르로서 더욱 확고해졌다. 초기의 다소 투박하고 과격한 스텝도 힘과 율동미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 연주단의 구성도, 아코디언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흐느끼는 듯하면서도 깊은 소리를 내는 독일계 악기인 반도네온bandoneón을 위시하여 바이올린, 피아노의 트리오로 정착되었고, 때로는 기타나 첼로가 추가되기도 한다. 1911년 아르헨티나의 한 잡지는 탱고가 이 해에 파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제는 왈츠만큼이나 대중적인 춤이 되었다는 승전보를 전했다. 그리고 1913년을 계기로 서유럽부터 미국, 심지어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탱고 열풍에 휩싸인다. 영국이나 파리에서는 탱고 콩쿨, 탱고 다(茶)회, 탱고 패션, 탱고 만찬, 탱고 샴페인 등 상업 이벤트로서도 탱고가 각광받았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탱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교황 피오 10세는 사제들에게 이 <비도덕적>인 춤을 비난하는 강론을 할 것

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미 탱고의 인기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유럽의 상류층은 사제들의 설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교황청의 단견을 비웃기까지 했다. 유례없는 망신을 당한 피오 10세는 탱고 댄서를 불러 자신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시키고 호평을 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핸더슨이라는 탱고춤 강사가 <비도덕적>인 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탱고를 선보였고, 재판장은 매력적이고 예술적인 춤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자 검찰은 핸더슨이 일부러 점잖게 춤을 추었다며 항의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보류하고 다른 탱고 댄서를 물색하였다. 다음 재판에는 호기심으로 인해 1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그리고 감격 잘하는 미국인들은 재판정인 것도 잊고 탱고의 율동에 매혹되어 시도 때도 없이 우뢰같은 박수를 터뜨려 판사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물론 핸더슨은 무죄였다. (곽재성 외, 2000:137)

국제적인 성공으로 말미암아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1920년 이후 약 30년간에 걸쳐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특히 이 기간은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이며 탱고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미 유럽을 한 번 거쳤던 탱고이기에 아르헨티나 인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탱고는 가장 사랑 받는 대중음악으로 자리잡아 전용 라디오 프로그램이 탄생하고, 탱고 댄스를 주제로 한 사진예술이 장르화 되며, 영화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탱고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로 카를로스 가르델 Carlos Gardel을 빼놓을 수 없다. 가르델은 1890년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출생하여 홀어머니를 따라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민 왔고, 23세 되는 해인 1913년부터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이 해를 탱고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공적은 녹음과 음반 제작을 통해

댄스와 상관없이 노래로서의 탱고라는 독자적 영역(Tango-Canción)을 구축한 것이다. 그의 노래는 우수에 찬 사랑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그것이 탱고 음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가르델이 콜롬비아에서 비행기 사고로 객사한 이후 뜨겁던 탱고의 열기는 잠시 주춤했지만 오히려 탱고는 주기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미니 스커트와 같은 면을 지니면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대중예술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1970년대 유럽에 몰아쳤던 탱고 붐이나 피아졸라Astor Piazzolla가 주도한 아방가르드 운동, 즉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시킨 신 탱고 운동 등이 가르델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아르헨티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경제부흥과 이민, 그리고 도시화를 중심으로 탱고라는 문화현상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아르헨티나인들의 유럽지향성은 19세기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유럽화된 주변부국가'라는 나름의 정체성이 다져진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산업화로 인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더욱 팽창하였지만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은 외곽의 하층민 거주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원래 거주하던 중-상류층의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이민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지만 단 한 평의 땅조차 소유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했고 이런 농촌을 지켜야할 이유가 없었던 탓에 많은 수가 도시로 이주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탱고는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탱고는 아르헨티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근대화 시대에 나타난 시대적 부산물이며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문화현상이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안에 내재된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화될 수 있다면 탱고는 다른 어떤 현상보다 그 작업이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어야할 대상이다.

참고문헌

곽재성, 우석균, 『라틴아메리카를 찾아서』, 민음사, 2000.

조영실, 「탱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빈민촌이 피워낸 에로티시즘」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3권 1호, 2000.

Calvert, Susan and Peter Calvert, Argentina: Political Culture and Instabilit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9.

Fraser Delgado, Celeste, et. al(eds.), Everynight Life: Culture and Dance in Latin/o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1997.

Keen, Benjamin, A History of Latin America, fifth edition, Houghton Mifflin, 1996.

Rowe, William and Vivian Schelling, Memory and Modernity: Popular Culture in Latin America, Verso, London, 1991.

Shumway, Nicholas, The Invention of Argent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Tatum, Chuck, "From Sandino to Mafalda: Recent works on Latin American Popular Cultur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9:1, 1994.

Wynia, Gary, Argentina: Illusiones & Realities, Holmes & Meier, 1986.

http://www.cyber-tango.com/e/tango_e.html

http://www.esto.es/tango